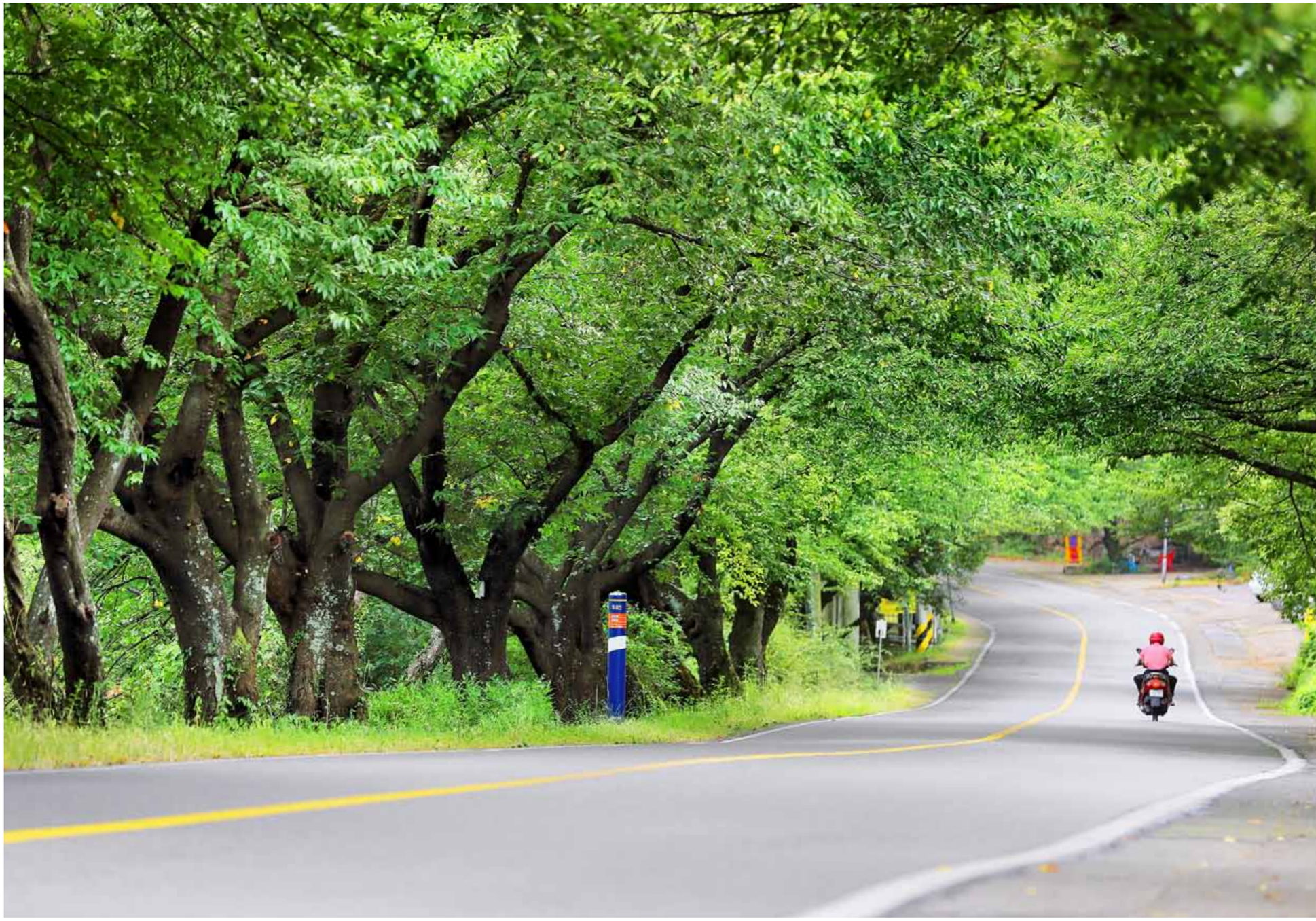
가슴을 두드리는 감성 문학 로드

진정 좋은 글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다. 때론 책 한 권이, 때론 글 한 줄이, 때론 단어 하나가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고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한다. 그 감동은 심연(深淵)에 던져진 돌처럼 가슴의 밑바닥에 오래도록 남아 삶과 동행한다. 감성 충만한 가을을 앞두고 문학작품 속 무대이자 작가의 삶과 문학에 자양분이 됐던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뎌본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김주형 기자



➤ '눈길'의 **장흥**

➤ '태백산맥'의 **보성 벌교**

➤ '토지'와 '역마'의 **하동**

소설 '눈길'의 장흥
서정성 가득한 바다와 포구와 들판

전남 장흥 앞에는 '어머니 품 같은'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그곳의 산과 들과 바다가 푸근하고 평안하단 뜻이다. 어머니 품 같은 그곳에서는 한국 문학의 거목들이 나고 자라 문림(文林)을 이루고, 그윽한 문향(文香)을 풍기고 있다.

3

예부터 전남에는 '여수에서는 돈 자랑 말고,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 말고,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 말라'는 말이 있다.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장흥에서는 글 자랑 말라'는 것도 있다. 장흥 출신 문인이 유독 많은 까닭이다.

이청준과 한승원, 소설 '녹두장군'의 송기숙, '생의 이면'과 '식물들의 사생활'을 지은 이승우, 이대흠과 위성관 시인이 모두 이곳 출신이다. 또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면 '관서별곡'(關西別曲)으로 평안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가 바로 이곳 출신 문인 백광홍(1522~1556)이다. 가히 '문향'(文鄕)이라 불릴 만하다. 이런 연유로 국내 최초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된 장흥에서는 문단의 거목과 작품 속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보석 같은 글을 잉태한 작가의 생가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제. 다섯 칸 겹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장이었더니라…."

이청준은 소설 '눈길' 속 어머니의 입을 빌려 어릴 적 살던 집을 이렇게 묘사했다. 실제 작가의 고향인 회진면 진목마을에 가면 다섯 칸짜리 생가를 만날 수 있다.

생가는 이정표를 따라 마을의 좁은 골목을 굽이굽이 지나면 닿는다. 넓어 보이지 않은 마당 한쪽에는 작가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는 커다란 안내판이 서 있다.

생가 방안에는 작가의 빛바랜 흑백 사진과 소설, 삶을 담은 액자들이 걸려 있다. 사진 속 이청준은 까까머리 소년에서 말쑥한 청년, 백발의 노인으로 달라지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맑고 서글서글한 눈망울이 따스함과 여운을 안겨준다. 액자 속에서는 이청준 소설의 씨앗 중 하나인 어머니의 모습도 있다.

액자 중 '철부지 출향과 게자루'란 제목의 글 속에서는 고향과 가난, 어머니라는 이청준 문학의 뿌리를 엿볼 수 있다. "1954년 광주의 중학교에 합격해 고향을 떠나기 전날 어머니는 빈손에 친척집 더부살이를 보낼 수 없어 까까머리 아들과 함께 갯벌에서 게를 잡았다. 하지만 다음날 게가 담긴 자루를 짊어지고 300리 버스길을 달려 친척집에 닿자 게는 부스러지고 깨어져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친척 누님은 그 상한 게 자루를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렸다." 이청준은 "나는 그 게자루가 그토록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것이 내 몰골이나 처지를 대신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친척집 사람들 앞에 자신이 그토록 남루하고 창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생가 뒤편 언덕을 오르면 소설 '눈길'에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거닐었던 길을 따라가는 여행이 시작된다. '눈길'은 이청준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향집이 빚쟁이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갔던 기억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다. 총길이 4.6㎞의 탐방로 출발점인 정자나무 아래 서면 포근하게 들어앉은 진목마을이 내려다보이고 조금 더 오르면 초록빛깔 간척지 뒤로 손바닥 만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1

2

1, 2 천관문학관에서는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등 장흥 출신 문인과 그들의 작품을 엿볼 수 있다.
3 영화 '천년학'에서 주막으로 사용됐던 세트 건물 뒤편으로 선학동과 학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산세가 펼쳐진다.

이청준의 소설 '선학동 나그네'는 눈 먼 소리꾼 누이를 찾아
선학동을 찾아든 사내와 주막집 주인의 대화를 통해 예술의 승화와 한의
정서를 회화처럼 보여준다.

소설 속에서 어머니는 집주인에게 사정해 옛집에 아들을 하룻밤 재우고 눈 내린 새벽에 산길을 걸어 아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고 홀로 길을 되짚어 온다. 하지만 동네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잿등에서 한참동안 마을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시린 눈을 해가지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없더구나.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져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학이 날아오르는 선학동 마을

"포구에 물이 들면 관음봉의 산 그림자가 거기에 떠올랐다. 물 위로 떠오르는 관음봉의 그림자가 영락없는 비상학의 형국을 자아냈다. 하늘로 치솟아 오른 고깔 모양의 주봉은 힘찬 비상을 시작하고 있는 학의 머리요, 길게 굽이쳐 내린 양쪽 산줄기는 날개의 형상이 완연했다.(중략) 선학동은 날아오르는 학의 품안에 안긴 마을인 셈이었다."(소설 '선학동 나그네' 중)

진목마을에서 동쪽의 해안 길을 따라 가면 '선학동'이란 이름의 마을이 나온다. 원래는 '산저마을'이었지만 이청준의 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입구에는 학 두 마리가 서로 기댄 조형물이 서 있다. 산봉우리를 등지고 바다를 향한 마을에는 가옥 몇 채가 옹기종기 들어앉아 있다. 그 풍경이 무척이나 평온하고 시적(詩的)이다. 마을 언덕에는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융단처럼 깔리고, 가을에는 하얀 메밀꽃이 뒤덮는다.

'선학동 나그네'는 '서편제', '소리의 빛'에 이어지는 이청준의 연작 소설 '남도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다. 소리꾼 누이를 찾아 선학동에 온 사내,

1 선학동 마을 언덕에 서면 초록빛 들판 뒤로 손바닥 만한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2** 진목마을의 이청준 생가. **3** 이청준 생가 방안의 액자들. **4** '이청준 문학탐방길' 이정표. **5** 국내 주요 문인의 시와 소설에 있는 글귀를 새긴 천관산문학공원의 바위. **6** 작품과 육필원고가 보관된 문탑.

1 소설 '불의 땔'의 무대인 회진포구. **2** 소설 '축제'의 배경이자 영화 촬영지인 남포항 앞바다의 소등섬. **3** 화덕중학교의 문인과 작품 벽화. **4** 한승원 문학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여다지해변.

눈 먼 여인이 소리를 할 때마다 학이 날아올랐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주막집 주인, 아비의 유골을 암장하고 떠나며 오라비에게 떠난 것이 아니라 학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전해달라는 누이 등 깊은 한(恨)의 정서가 선학동 풍경과 어우러지며 회화처럼 눈앞에 그려진다. 이 소설은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로 조재현과 오정해가 주연으로 등장한 '천년학'으로 탄생되기도 했다. 마을 앞으로 펼쳐진 들판을 가로질러 바다를 막은 제방에는 영화 촬영 때 사용한 양철 건물도 들어서 있다.

제방에 서서 선학동을 바라보면 기묘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마을 뒤편 산봉우리의 형상은 소설에서처럼 장삼자락을 길게 펼치고 앉은 법승(法僧) 같다. 소설에서는 포구에 물이 들 때와 누이가 소리를 할 때만 학의 비상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봉우리는 그 자체로도 학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오르는 형국이다. 제방에 서서 선학동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이의 한 서린 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듯하다.

소설과 시 아닌 곳이 없는 땅

제방 북쪽은 회진포구다. 한승원의 소설 '불의 땔'에서 주인공이 의붓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지났던 포구와 바다가 펼쳐진다. 다시 북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 이청준의 소설 '축제'의 배경이자 영화 촬영지인 남포항이 나온다. 마을은 작고 보잘 것 없으며 촬영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해가 뜰 때 마을 앞 조그만 소등섬과 바다가 이루는 풍광은 놓칠 수 없는 광경이다. 다시 북쪽으로 안양면 여다지해변에 가면 한승원의 시와 작품을 커다란 돌에 새겨놓은 '한승원 문학 산책로'를 만나게 되고, 인근 마을 안쪽 언덕에는 한승원 작가가 머물며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해산토굴'도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산면에서는 송기숙의 '자랏골의 비가', 관산읍에서는 조윤희의 '모서리의 사랑', 부산면에서는 김석중의 '구름 걷어내기' 등 장흥 전역에는 문학의 향기가 깊게 배어 있다. 소설과 시를 읽고 장흥 땅을 밟으면 그곳의 산과 들과 바다가 모두 아름다운 시어가 되고 소설의 한 구절이 되고 만다.

소설 '태백산맥'의 보성 벌교
혼돈의 현대사 담긴 소설의 무대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며 이념으로 첨예하게 갈등하던 혼돈의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질펀한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담은 소설 '태백산맥'. 전남 보성군 벌교는 소설 속 인물의 주요 활동 무대다. 벌교 땅에 들어서면 혼돈의 현대사가 눈앞에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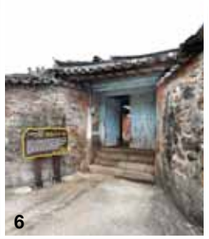
"고것이 지아부리 힘든다 혀도 워찌 뻘밭에다 방축 쌓는 일에 비양댔소.…근디 기맥히게도, 방죽을 다 쌓고 본께 배뿔리는 늠털언 일본 늠털이었다. 그것이요."

소설 '태백산맥'은 여순사건이 있었던 1948년 늦가을 전남 보성의 벌교를 배경으로 시작해 빨치산 토벌작전이 끝나기던 1953년까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념 갈등과 혼돈의 역사를 4부로 나눠 책 10권에 담은 작품이다. 작가 조정래는 4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6년간 집필해 현대문학에 기념비적인 대하소설을 탄생시켰다.

소설은 정하섭이 현부자네 제각에 살던 무당 소화를 찾아가며 시작된다. '소설 태백산맥 문학기행길'의 시작도 물론 소화의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설과 달리 현부자네 대문 바깥에 있지만 소화의 집은 소설에서처럼 아담하고 정갈하다. 이곳에서 정하섭과 소화의 애틋한 사랑이 진행된다.

"그 터는 후덕한 부인네가 치마폭을 펼쳐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올리는 형상이라는 것이었다.(중략) 정남향에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리고 앞에 물길까지 트였으니 이에 더할 명당이 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소설 '태백산맥' 제1권 중)

소화의 집 바로 옆 현부자네를 두고 소설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실제 현부자네 뒤편 제석산 산줄기가 흘러내리다가 현부자네에서 평지를 이루고 다시 아래로 내리 뻗치고 있다. 현부자네는 한옥에 일본식이 가미돼 있다. 대문채 2층에 창이 있는 누각이 설치돼 있고, 정갈한 안쪽 건물의 마루는 조선식, 천장은 일본식이다. 마당 중앙에는 정원이 조성돼 있다. 현부자네 왼쪽으로는 제석산으로 향하는 '조정래 등산길'이 있다. 소설 속 빨치산들은 벌교읍이 훤하게 내려다보이는 바로 제석산을 통해 벌교를 드나들곤 했다.



1 아치가 아름다운 홍교. 2 소화다리. 3 염상구를 떠올리게 하는 철다리. 4 제석산으로 이어지는 '조정래 등산길'. 5, 9 태백산맥문학관. 6, 7 김범우의 집. 8, 11 소설에서 '남도여관'으로 묘사된 '보성여관'. 10 조정래의 음각을 볼 수 있는 공원. 12 옛 금융조합 건물.

벌교읍의 소화다리와 홍교, 철다리는 모두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지나다니고, 또 다양한 중대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이다.

염상구의 철다리와 중도방죽

소설 속 염상진의 동생인 염상구는 철다리 아래 선창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켜 일본인 선원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해방이 되며 벌교로 돌아온다. 그는 일본놈을 처치한 독립투사로 변신했고, 청년단 감찰부장이 됐다. 그리고 장터거리의 깡패 왕초 땅벌과 철교의 중앙에 서서 기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누가 더 오래 버티다가 뛰어내리는 지를 겨룬다. 물론 염상구가 더 오래 버티다 뛰어내렸고 땅벌은 벌교바닥을 뜨게 된다.

염상구와 땅벌의 희한한 결투가 벌어진 장소는 현부자네 남쪽에 있다. 이 철다리는 1930년 경전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놓인 것으로, 벌교 포구의 양안을 연결하는 교량 중 하나였다.

다시 물길을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하면 중도방죽이 나타난다. 일본인 지주인 나카시마(中島)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간척지 방죽의 이름으로, '산몬뎅이(산꼭대기)에 성 쌓는 것보다 더 힘들게 쌓았다'는 방죽 위로는 지금 옛 일을 망각한 평화로운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다시 물길을 거슬러 철다리를 지나면 소화다리(부용교), 횡갯다리(홍교)가 차례로 나타난다. 1931년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된 소화다리는 좌익과 우익이 번갈아 점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했던 장소로 묘사된 곳이다.

또 소설 속 인물들이 건너다니던 홍교는 벌교 포구를 가로지르는 다리 중 가장 오래된 세 칸의 무지개형 돌다리다. 원래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뗏목다리가 있었는데 1728년(영조 4년)에 홍교가 건립됐다고 한다. '벌교'라는 지명은 옛 뗏목다리(筏橋)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내 보물 홍예교 4개 가운데 가장 큰 이 다리는 보물 제304호로 지정돼 있다.

소설 펼쳐지는 '태백산맥길'을 따라서

홍교 북쪽 마을의 비탈진 골목을 구불구불 걸어가면 '김범우의 집'이 있다. 사랑채, 겹안채, 장독대, 돌담 등이 있는 기와집으로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해 담은 허물어지고 빛깔이 바랬다. 원래 벌교의 대지주인 김씨 집안의 집으로 조정래 작가는 초등학생 시절 이집 막내아들과 친구였다고 한다. 소설에서는 품격 있고 양심을 갖춘 대지주 김사용의 집으로 그려지고 있다. 민족주의를 주장한 중도적 지식인 김범우는 실제 미국 전략정보처(OSS) 요원 출신으로 미군 통역관을 지낸 외삼촌이 모델이었다고 한다.

홍교를 건너 '태백산맥길'로 접어들면 지금은 '벌교 어린이집' 간판이 내걸린 자애병원, 벌교읍사무소, 옛 금융조합을 차례로 지난다. 청년단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빨치산 토벌을 위해 군대가 주둔한 M1고지로는 계단이 나 있다. 고지에서는 벌교읍이 환하게 내려다보인다.

남도여관은 '보성여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여전히 손님을 맞고 있다. 여관 전시실은 여관과 벌교의 역사, 소설 속의 남도여관을 엿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문학길이 이끄는 마지막 장소는 벌교역이다. 염상진이 사살돼 목이 내걸리고 경찰과 염상진의 가족이 몸싸움을 벌인 곳이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동생 염상구는 "요런 개좆같은 새끼덜아, 살아서나 빨갱이제 죽어서도 빨갱이여! 당장에 못 떠내리겄어!"라고 말한다.

소설 '태백산맥'의 집필 과정과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소화의 집 뒤편에 있는 '태백산맥문학관'을 방문하도록 한다. 이곳에서는 '태백산맥'이 탄생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지켜보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새겨볼 수 있다.

소설 '토지'와 '역마'의 하동

섬진강 물길 따라 펼쳐지는 소설의 향연

경남 하동은 거대한 지리산 줄기가 섬진강과 만나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누구라도 아름다운 문장 하나 남기고 싶어지는 풍경이다. 강줄기 옆의 너른 들판에서 현대문학 최고의 걸작인 '토지'가, 장터와 계곡을 배경으로 김동리의 대표작인 '역마'가 탄생한 것도 우연은 아닌 듯하다.

1

2

섬진강변의 너른 들녘을 품고 있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가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연유는 무엇일까. 박경리는 '토지'를 구상한 후 경상도의 말과 풍습이 있고, 만석꾼이 나올만한 넓은 들판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함께 하동을 여행하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는 평사리의 들녘을 보고 무릎을 쳤다고 한다. 작가는 "평사리를 감싸 안은 지리산과 섬진강이 지닌 역사적 자취, 경상도 땅에선 좀체 찾아보기 힘든 넓은 들녘이 구상 중인 '토지'의 배경에 더없이 어울려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게 '한민족의 위대한 서사시'라 불리는 '토지'는 평사리의 너른 들판과 지리산, 섬진강을 배경으로 하나씩 쓰여졌다. 작가는 1969년 혼을 담아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 25년이 지난 1994년 마침내 16권의 책으로 대서사시를 완성해 냈다. '토지'를 집필하며 쓴 원고지가 3만1천여 장, 글자 수는 6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최서희, 길상이, 조준구, 최치수, 윤씨 부인, 용이, 두만네, 월선이 등 등장인물만도 600여 명에 달하고, 평사리를 뿌리로 진주와 통영, 서울, 간도와 만주, 일본과 중국 등으로 활동 무대를 넓힌 스케일도 장대하다. 소설 '토지'는 세 번에 걸쳐 TV드라마로 제작됐고 영화, 서사음악극, 만화 등으로도 선보여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이 됐다.

평온한 평사리의 너른 들녘에서

평사리 초입에서 보면 주인공 '서희'가 그렇게 되찾고 지키려 했던 드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평사리는 500리 섬진강 물길 인근에서 들이 가장 넓은 땅으로, 옛날엔 거지도 이곳에 오면 1년은 걱정 없이 얻어먹고 배불리 지낼 수 있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불리는 이름도 '평사리 황금들판'이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을 감상할 수 있다.

평온한 들판 뒤로는 소설 속의 마을이 재현돼 있다. 비탈을 오르면 칠성이네, 용이네, 김평산네 등의 초가가 나오고 언덕 중턱에 아흔 아홉 칸 기와집이 바로 최참판댁이다. 문간채를 시작으로 별당채, 안채, 중문채, 사랑채, 뒷채, 사당, 초당, 행랑채 등을 돌아보면 소설 속 장면들이 펼쳐지는 듯하다. 장소마다 등장인물에 관한 설명과 드라마 장면을 담은 안내판이 있어 소설이나 드라마를 봤던 방문객들은 회상에 잠겨 미소를 짓곤 한다.

최치수가 거주했고 조준구가 머물렀던 사랑채는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쓰던 정자관에 도포를 차려 입고 흰 수염을 기른 참판이 소설과 등장인물, 최참판댁의 구조 등을 설명해주고 소설, 차, 선비 문화, 예절 등을 주제로 강의도 한다.

사랑채의 백미는 대청마루에서 보는 담 너머의 풍경이다. 중국 후난(湖南)성 웨양(岳陽·악양)에 견줄만해 '악양면'이란 이름이 붙은 넓은 들과 굽이치는 강줄기가 풍경화처럼 펼쳐진다.

3

4

5

6

1 하동과 구례를 잇는 남도대교에서 바라본 섬진강 줄기. 2 최참판댁 이정표. 3, 6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인 사랑채. 흰 수염을 기른 사람은 명예참판이다. 4, 5 최참판댁 내부 풍경. 7, 8 최참판댁 뒤편에 있는 평사리 문학관.

7

8

최참판댁 사랑채에서는 너른 들판과 섬진강의 줄기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들판 가운데 소나무 두 그루는 소설 '토지' 속 서희와 길상처럼 다정해 '부부송'이라 불린다.

1

2

3

1 가수 조영남의 동상이 서 있는 화개장터. **2** 화개장터 바깥에는 소설 '역마'를 원작으로 제작한 영화에 관한 안내판이 서 있다. **3** '역마'의 줄거리를 담은 그림과 조형물이 있는 공원.

화개장터에서 싹튼 우연한 인연

가수 조영남이 부른 '화개장터'의 노랫말처럼 섬진강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고, 화개장터엔 아랫마을 하동과 윗마을 구례 사람이 모여든다. 장터 인근 음식점에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아주머니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김동리의 소설 '역마'는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례에 사는 체장수 노인이 딸 계연을 화개장터에 있는 주막집 주인 옥화에게 맡기고 장사를 떠나며 소설은 시작된다. 시간이 흘러 계연과 옥화의 아들 성기는 서로를 마음에 두는 사이가 된다. 하지만 옥화는 체장수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계연은 아비를 따라 여수로 떠나간다.

화개장터에서 소설 속에 묘사된 주막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산나물과 약초는 소설에서처럼 주요 특산품으로 팔리고 있다. 관광객들은 조영남 동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장터 한쪽에서는 판소리와 육자배기 대신 엿장수가 흥겨운 노랫가락에 맞춰 북을 친다. 장터 옆에는 소설을 주제로 한 문학공원이 조성돼 있다. 주막에 계연을 데려온 체장수, 성기와 만난 계연, 계연과 이별하고 엿판을 들고 떠나는 성기 등 소설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볼 수 있다.

화개장터를 돌아본 후에는 쌍계사 계곡 길로 향한다. 봄이면 벚꽃이 화려한 이곳은 성기와 계연이 칠불암 가는 길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장소이다. Ⓨ

둘러볼 곳

장흥과 보성, 하동은 문학 기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명소가 점재해 있는 고장이다. 남도 문학 기행 길에 함께 방문할 만한 장소와 흥겨운 축제를 소개한다.

사진 / 장흥군청 제공

정남진 토요풍물시장

탐진강 변에 위치한 정남진 토요풍물시장은 장흥의 대표 특산품인 한우가 시중에 비해 30~40%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유명해져 현재 장흥의 필수 방문지가 됐다. 한우는 20곳이 넘는 판매점에서 구입해 인근 식당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특히 키조개와 표고버섯, 한우를 불판에 구워먹는 '장흥삼합'이 인기를 끌며 더욱 유명해졌다.

장흥

사진 / 장흥군청 제공 1

사진 / 장흥군청 제공 2

❶ 정남진 장흥 물축제

'물'을 주제로 한 국내 대표 여름 축제다. 물총, 물대포, 물풍선, 물바가지를 이용하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을 비롯해 탐진강 맨손 물고기 잡기, 천연 약초 힐링 풀 체험, 탐진강 위에서 펼쳐지는 뗏목·플라이 보드·수상자전거·도전 드림팀·나무보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음악 콘서트, 다문화 춤 공연, 수상 줄다리기, 탐진강 건너기 수영대회가 있고, 우드랜드에서는 숲속 음악회, 목공예 체험 교실 등도 열린다. www.jhwater.kr

❷ 개매기 축제

대덕읍 신리 바닷가에서 매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되는 체험 행사다. 개매기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 갯벌 위에 그물을 쳐 놓은 후 밀물 때 조류를 타고 들어온 물고기 떼를 물이 빠질 때 그물에 갇히게 해 잡는 전래 고기잡이 방법이다. 축제 기간에 방문객들은 숭어, 도미, 낙지, 게 등을 직접 손으로 잡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어망이나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여벌의 옷가지, 장화, 장갑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sinri.seantour.com

편백숲우드랜드

장흥읍이 내려다보이는 억불산 자락 100만㎡ 규모 편백나무 숲 속에 들어선 관광 시설이다. 목재문화를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관, 한옥·황토흙집·목재주택에서 건강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주택체험관, 목공예품을 만들고 생태주택 건축기법을 배울 수 있는 목공건축체험장, 나무의자와 해먹, 나무움막이 설치된 풍욕장인 '비비에코토피아', 편백노천탕, 편백톱밥 산책로, 편백소금집 등이 인기가 높다. www.jhwoodland.co.kr

사진 / 장흥군청 제공

천관산

호남 5대 명산에 속하는 천관산은 정상 부근에 하늘을 향해 빼죽빼죽 솟은 바위의 모양이 마치 천자의 면류관을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정상부에서는 기바위, 사자바위, 부처바위 등 다양한 모습의 바위를 볼 수 있다. 정상에 서면 수많은 섬들이 장관을 이루는 다도해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 가을이면 금빛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2~3시간이 걸리는 등산 코스가 여러 개 있어 산행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사진 / 장흥군청 제공

보성

사진 / 보성군청 제공 1

사진 / 보성군청 제공 2

❶ 보성차밭 빛축제

회천면 영천리 봇재다원과 다향각 일원, 율포 솔밭 해변은 매년 겨울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다. LED 200만 개를 이용한 사랑의 은하수터널, 봇재~다향각 경관조명, 테마거리, 빛의 거리 등이 황홀한 풍광을 선사한다. 특히 높이 120m, 폭 130m의 규모의 부채꼴 대형 트리는 보성이 판소리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 포토존이 마련되고, 소망카드 달기 체험 행사와 상설공연도 진행된다. 빛축제는 매년 12월 중순부터 1월 말경까지 진행된다. light.boseong.go.kr

❷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보성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과 보성소리를 만든 정응민을 배출한 판소리계의 성지다. 매년 10월 보성읍 다향체육관과 서편제소리전수관에서는 판소리, 창극, 민요, 사물놀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펼쳐진다. 판소리 명창과 국악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판소리 한대목 배우기, 도자기 만들기, 전통악기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전통공예품과 미술작품 전시회도 열린다. sori.boseong.go.kr/sorifastival

사진 / 보성군청 제공

율포 솔밭 해변

보성의 남쪽 끝인 회천면에 있는 해변으로 은빛 고운 모래와 초록빛 해송이 잔잔한 득량만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폭 60m와 길이 1.2㎞에 이르는 은빛 모래밭에 50~60년생 소나무가 숲을 이룬 이곳은 지난 2012년 전국 3대 우수 해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곳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지하 120m에서 용출되는 심해의 맑고 청정한 바닷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해수풀장도 있다. 풀장은 여름에만 개장한다.

보성차밭(대한다원)과 한국차문화공원

보성읍 봉산리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비탈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다원은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경관이 아름다운 다원으로 각종 영화, 드라마, 광고에 등장했다. 지리적으로 바다와 가깝고 기온이 온화하면서 습도가 차 재배에 적당하다. 초록빛 차밭 사이 산책로를 거닐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하다. 인근에는 차의 역사와 문화 등 차에 대한 모든 것을 모아놓은 한국차박물관과 소리청, 득음정, 세계차식물원 등이 있는 한국차소리문화공원이 있다.

사진 / 보성군청 제공

하동

쌍계사

신라 성덕왕 21년(722) 의상의 제자인 삼법선사가 당나라 육조 혜능대사의 정상(頂相, 고승의 초상화)을 가져와 "지리산 설리갈화처(雪裏葛花處 : 눈 쌓인 계곡에 칡꽃이 피어있는 곳)에 봉안하라"는 꿈의 계시를 받고 호랑이의 인도로 찾아가 절을 지은 것이 유래가 됐다. 사찰에는 진감국사 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과 쌍계사 부도 등 보물 6점이 있다. 절 입구의 차시배지에는 '차시배추원비', 해동다성진감선사추앙비, 차시배지 기념비 등이 있다.

사진 / 하동군청 제공

사진 / 하동군청 제공

하동 송림

조선 영조 21년(1745) 도호부사 전천상(田天祥)이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섬진강변에 소나무를 심었던 것이 오늘날 풍경 수려한 국내 제일의 노송 숲이 됐다. 노송 750여 그루가 우거져 있는 숲의 면적은 약 2만2천㎡에 달한다. 송림은 넓은 은빛 백사장, 섬진강 푸른 줄기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다. 숲에는 궁도장이 있으며, 옛날 활을 쏘던 장소인 하상정(河上亭)이 있다. 송림은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돼 있다.

사진 / 하동군청 제공 1

사진 / 하동군청 제공 2

❶ 토지문학제

소설 '토지'의 무대인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에서 전국 문인과 문청이 매년 10월 모여 개최하는 문학제다. 소설 토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가을 풍경 그리기 대회, 토지백일장, 판소리 공연, 문인의 밤(시낭송), 마당극과 추모 시극 공연, 토지길 걷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토지문학제 작품 공모 분야는 평사리 문학대상(시·소설·수필), 평사리 청소년문학상(소설) 등 2개 분야로, 올해 당선작은 10월 9일 토지문학제 행사장에서 발표된다. tour.hadong.go.kr

❷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쌍계사 주변은 신라 흥덕왕 때 당에 사신으로 갔던 대렴공이 차 종자를 들여와 심은 국내 최초의 차 시배지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야생차를 알리고 차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차가 생산되는 매년 5월에 여는 행사다. 시배지에서의 다례식으로 시작되는 축제에서는 공연, 놀이, 체험을 통해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야생 찻잎 따기, 야생차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고 차 시음과 다도, 녹차 미용 체험, 녹차 비누와 양초 만들기 등도 즐길 수 있다. festival.hadong.go.kr